

▶ 소비자·가족자원경영

##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

김 미 영\* (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)

박 미 석 (숙명여자대학교 가정·아동복지학부 교수)

본 연구는 기혼 여성들의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기혼여성들의 출산 의도와 출산 결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, 기혼여성들의 유기체적 특성과 기혼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구분하였다.

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316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자료 처리는 SPSS 12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신뢰계수(Cronbach's  $\alpha$ ), 교차분석,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, t-test, one-way ANOVA, 중다 회귀분석,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.

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, 기혼여성들은 현재 연령이 낮을수록, 현재 자녀수가 적을수록 출산의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회 및 가치관의 변화나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결혼연령이 상승하여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예전과 달리 소(少)자녀관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. 그리고 배우자의 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출산 의도가 있었는데 성 평등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.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일수록, 본인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출산의도가 있었다. 미혼 여성과 달리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는 가정 내 자신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의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. 따라서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. 둘째, 기혼여성들은 실제 출산 결정시 무엇보다도 소득과 결혼만족도를 고려하였다. 소득이 많을수록 출산 결정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경제적 요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교육비, 양육비 등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.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 결정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, 결혼생활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사회기관을 통해 실시될 필요가 있다.

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혼여성의 출산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무엇보다 기혼여성의 출산에 대해 기존의 단일 변인을 통한 접근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. 또한 생태학적 관점은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.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, 출산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출산 수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.